

쉬 나무

최명섭 중부임업시험장 수목원과
임업연구소

科名 : 운향과
學名 : *Evodia daniellii*
英名 : Korean Evodia
漢名 : 朝鮮吳茱萸

日名 : ちょうせんごしゆゆ

소나무나 느티나무등과 같이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는 수종들을 인간(人間)식생(植
生)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쉬
나무도 인간식생중의 하나다.
우리선조들이 유익한 수종으로
집가까이 혹은 궁궐이나 성곽주
변에 심어온 쉬나무는 밤에 불
을 켜는 등유(燈油)를 채취 하
거나 나막신을 깎아서 신기도
하였다.

지방에따라 쇠동백나무, 다지나
무, 소동나무, 수유나무등으로
외부적인 형태나 생육특성에 의
해 여러가지의 이름으로 불렸다.

1. 생육특성

쉬나무는 전국의 표고 100~
600m사이에 분포하는 낙엽활

엽큰키나무로 수고 15m까지
자라며 추위에 강하여 전국 어
디에서나 잘자라며 해변가의 산
림에서도 무성하게 자란다. 토
심이 깊은 밭 두둑이나 민가의
주택 주변에서 왕성한 생육을
하며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디
며 각종 공해에도 강하고 맹아
력도 왕성하여 도심이나 마을
주변 혹은 가로수로도 적당한
수종이다.

2. 형태적특성

수간은 한줄기로 이루어지고
원추형이나 원정형으로 가지가
밀생하고 수피는 회갈색으로 평
활하며 어린가지는 적갈색이고
피목이 발달한다. 잎은 마주나
고 기수우상복엽(奇數羽狀複葉)
으로 7~11개의 소엽으로 구성
되며 긴 계란형으로 길이 5~
12cm이며 뒷면에 털이 있고 가
장자리에 선점(腺點)과 톱니가
있다.

꽃은 잡성화(雜性花)로 자웅이

주이며 8월에 우산형태로 담황
색꽃이 핀다.

열매는 10월에 붉은색 삭과
(蒴果)로 익어 타원형의 흑색종
자를 갖는다.

유사종으로는 소엽이 7~16
개이며 뒷면에 털이 있고 열매
는 원두인것을 오수유(*E. o-*
fficialis)라고 하며 경주에
자란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성

7~8월에 나무전체를 뒤덮으
며 피는 황백색의 꽃은 무더위
속의 시원한 청량제역활을 한
다. 더우기 이꽃은 꿀샘이 깊어
꽃이 만개 할때는 꿀벌들이 무
리를 이루워 모여 든다. 10월에
분홍색으로 익는 붉은열매는 먼
곳에서 보면 마치 꽃핀것과 같
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이 나무의 수형은 우산과 같이
원만하고 둥글다. 나라마다 국
민들의 개성이 틀리지만 우리선

조들은 등글고 원만한 이 나무의 수형을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러던 이 쉬나무는 둥근모양보다는 곧고 뾰족하고 화사한 외래관상수를 선호하는 취향에 밀려 우리주변에서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점차 우리선조들이 아끼고 가꾸던 전통 관상수의 뿌리를 찾아야 할때가 왔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많은 우리의 전통수종이 심어지고 있으며 양묘가 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우리의 주변에 오랫동안 되고 애호하던 쉬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가꾸어야 할때가 아닌가 한다.

4 번식법

가. 종자번식

10월말에 채취한 종자는 세척제인 풍풍이나 하이타이 50배액에서 마찰시키면서 종자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거품이 충분히 일어나게 세척한 후 수도물로 종자를 행근후 모래와 종자를 1:1비율로 혼합하여 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75%이상의 발아율을 보인다.

나. 삽목번식

모수에서 전년예 자란 새가지를 길이 10cm로 절단하여 4월에 꺾꽂이 하면 발근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한다.

※ 2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종자번식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5 그 밖의 용도

쉬나무의 열매는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유망하여 관련학계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열매에서 얻은 기름은 엔진을 가동시킬수 있는 양질로 판명되는데 아직은 경제성이 없어 실용 단계에는 와있지 않다. 70년대 에너지 파동 이후 세계각국이 목본식물의 종실유(種實油)로 디젤 및 석유엔진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을때 우

라나라에서도 운향과에 속하는 쉬나무를 비롯한 산초나무 초피나무 예덕나무 주엽나무 사람나무에서 채취한 기름을 대체에너지로 활용할수있는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한바 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무한한 임업자원중 쉬나무를 대체에너지 주종자원으로 대대적인 조림을 해나갈 필요가 절실하다.

야생조수의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조류의 먹이가 되며 목재는 단단하고 강하여 기구재, 건축재로 쓰며 늦여름에 피는 꽃에는 많은 꿀이 있어 밀원식물로 가치가 크며 10월에 익는 열매는 가을꽃을 보는듯 하다. 44

